



“5월은 우리들 세상” 제96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2일 광주시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노란손수건을 들고 어린이날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보경찰, 민간기관 출입 전면 중단

민간영역 정보수집 사찰 논란

경찰청, 개혁위 권고 수용

정치 목적 정보활동 형사처벌

10월까지 구제 지침안 마련

정보 담당 경찰관의 정당, 언론사, 학교, 시민단체 등 민간조직 출입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내·외근적으로 나눠 기관이나 시민단체를 출입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한 뒤 수시로 상부기관에 보고해왔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사찰’, ‘인권침해’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며, 일부 정보경찰의 사례가 ‘정보 왜곡’, ‘타 기관 길들이기’ 등 폐단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청 개혁위원회의 따르면 이날 정보 담당 경찰관의 민간조직 출입을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정보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 직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근거를 둔 조직이다. 경찰청 정보국과 각 지방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치안정보’라는 개념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이 때문에 경찰 정보활동이 민간 영역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 시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개혁대상으로 지적해 왔다.

개혁위도 “정보경찰이 ‘통치 보좌’나 ‘사찰’ 논란을 부른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민 안전과 공공안녕이라는 본연 업무에 충실하도록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를 받아들여 정당, 언론사 등 민간시설 상시 출입은 즉각 중단하고, 출입 요건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 민간영역 대상 정보활동 규정은 삭제한다.

‘치안정보’ 용어 변경과 정보경찰 직무 범위 규정 신설, 권한남용 행위 처벌 등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책정보·신원조사 등 업무 조정·이관도 추진한다.

개혁위는 개념이 모호한 ‘치안정보’ 대신 ‘공공안녕의 위협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정보국 기능을 재편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반영해 정보국 명칭을 개정하고, 직무 범위도 공공안녕과 국민안전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국가 정책에 관한 민심과 갈등요소 등을 살피는 정책정보,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는 정부 차원의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해 이관·조정하라고 개혁위는 요구했다. 정보인력을 축소해 민생치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보경찰의 주된 영역 중 하나인 집회·시위 관련 업무는 경비 등 다른 부서로 남기고, 외근 정보관들이 쓰는 별관 사무실인 ‘정보분실’은 본관으로 이전하라고 개혁위는 권고했다.

정당·언론사·학교·종교기관·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영역에 대한 정보관들의 상시 출입은 중단하고, 직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나 시설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관을 최소한도로 드나들도록 했다.

정치 관여 목적을 띤 정보활동은 형사처벌한다. 정보활동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를 받고,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와 시민 감시기구가 정보경찰을 감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간 경찰이 생산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던 원칙을 버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며, 정보보고에 작성 경찰관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실명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경찰청은 “그간 정보경찰의 사찰 논란 등이 제기됐고 국민 기본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권고 취지를 존중해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은 현재 경찰법에 따라 정보과 또는 정보보안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청과 5개 경찰서를 합쳐 모두 100여명의 정보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빠져

‘6.25 남침’ 추가...‘자유’ 빠진 ‘민주주의’ 반발

교육부 중·고 한국사 시안

중·고교생용 새 역사교과서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집필기준’ 시안(草案)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6·25 전쟁 서술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침’ 표현은 집필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에 추가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2일 공개했다. 중·고교생들은 오는 2020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 교과서로 공부한다. 기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백지화됐다.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

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적었다.

새 집필기준 시안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다른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부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고, 역대 역사과 교과서에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다.

새 집필기준과 관련, 보수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발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행정예고)을 거친 뒤 7월 초까지 집필기준을 포함한 역사과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립대, 보호시설 청소년 입학·취업 지원

전국 8개 전문대 전형 마련...장학금·기숙사 제공 등 대학생할 관리도

전남도립대 등 전국 8개 전문대학이 정부와 손잡고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홀로 설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남도립대, 한국복지대, 강원도립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북도립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학 등 전국 8개 국립 전문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전문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나서는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들이 입학하면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고 대학생살을 잘할 수 있게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 졸업 후에는 취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안정된 여건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정원 내·외 전형을 마련해 우선 입학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0 해질 22:18
해진 19:19 달질 07:56

외투 챙기세요
구름 많은 가운데 비람 강하게 부는 곳 있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 많음	10/18	보성	구름 많음	8/18
목포	구름 많음	11/17	순천	구름 많음	10/19
여수	구름 많음	11/19	영광	구름 많음	9/17
나주	구름 많음	9/18	진도	구름 많음	10/17
완도	구름 많음	11/18	진주	구름 많음	9/17
구례	구름 많음	8/18	군산	구름 많음	10/15
강진	구름 많음	10/19	남원	구름 많음	7/17
해남	구름 많음	9/18	홍산도	맑음	10/16
장성	구름 많음	8/1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부	안바다	서~북서	파고(m)	서~북서	파고(m)
안바다	안바다	서~북서	1.5~2.5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안바다(동)	서~북서	2.0~3.0	서~북서	1.5~2.5
면바다(서)	면바다(서)	북서~북	1.0~2.0	서~북서	1.0~2.0
			2.0~3.0	서~북서	1.5~2.5
			2.0~4.0	서~북서	2.0~3.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26	04:19
		21:25	16:13
여수		04:54	10:50
		16:45	23:22

◇ 주간 날씨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9/22	11/25	16/20	16/22	15/23	14/25	15/25

◇ 생활지수

- 식중독: 관심
- 자외선: 높음
- 미세먼지: 보통

더 나은 삶 더 큰 미래

오늘보다 내일, 당신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금융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MG 새마을금고